

태고종 승려자격 강화

승니법 개정 중풍쇄신...4년제 대졸자 이상

4년제정규대학 또는 동등한 학력을 구비한 행자(행자) 태고종 독도수계산림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종헌종법개정위원회 중심으로 승니법 제(개)정 작업을 추진해 온 태고종(총무원장 서봉스님)은 지난달 28일 총무원회의실에서 종헌종법개정위원회 기초위원 및 전체회의를 갖고 행자의 독도자격 개정안을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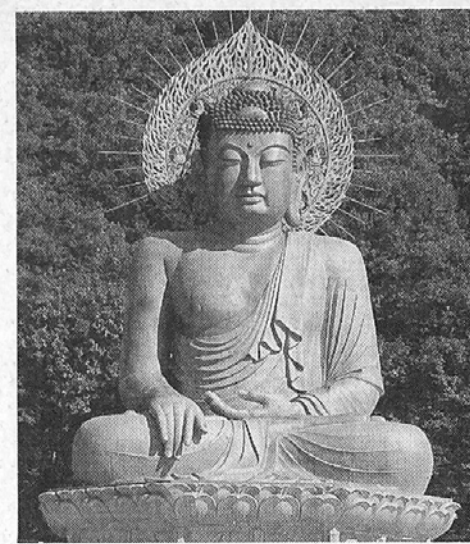
태고종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70회 중앙총회에서 교육개혁추진결의에 따라 승려의 자질향상과 종풍쇄신운동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날 확정된 승니법의 개정 조항에 따르면 승려의 자격을 기존의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에서 4년제정규대학(동방불교대 포함) 또는 동등한 학력을 구비한 자에 한해 수계산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태고종의 한관계자는 "행자의 자격강화로 인해 독도교육에 참여할 행자가 다소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나 종단의 질적인 개혁발사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개정조항이었다"며 "향후 행자의 자격강화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도 극대화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태고종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제71회 중앙총회에서 종헌종법개정위원회가 최종확정한 행자의 자격조항을 다른 승니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실시한다.

한편 현재 학력에 따른 승려의 독도자격은 조계종의 경우 고졸 또는 동등이상의 실력이 있는 자에 한해 사비·사비니계를 수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진각종은 종단외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고 종단내 교육과 교화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흥사 청동좌불 '장엄'

통일염원 북한 銅 사용 8년만에 회향

설악산 신흥사 청동좌불상이 공사착공 8년만에 회향, 오는 12월3일 그 장엄함을 드러냈다.

신흥사 일주문 옆 2천여평 부지에 조성된 이 좌불상(사신)은 좌불높이 13.8M(전체높이는 17.8M)로 동양 최대규모, 일본 나라대불보다 70cm 높다. 무게만도 118톤에 이른다.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뜻을 담은 이 불상은 청동재료를 북한산 최고급 전기동을 들여왔다. 통일을 염원하는 불상인만큼 같은 민족의 땅에서 생산된 재료를 쓰자는 이유에서다. 또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멈춘 방생·성지순례 버스에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불청객'들이 있다. 스님복장을 한 가짜 승려들이다. 이들은 반야심경 등 복잡한 다라니를 넣은 봉투를 신도들에게 돌린 후 "불우 노인들·정박아를 돌보고 있다. 성의껏 도와 달라"며 신도들의 돈을 거두어 사라진다.

이들의 수법은 연꽃마을이나 자비원이나 하는 이름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기존의, 널리 알려진 '연꽃마을'과 '자비원'과의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 더구나 00사 문중이니 00스님의 손자이니 하며 돌아가신 큰스님 범명까지 들먹여 신도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이들 사이비승들이 나누어준 봉투 덕분에 쓰인 전화 번호를 확인해 보면 그곳은 절이 아니라 영종한 가정집이나

지구촌 불교

부다가야 대탑 운영권 요구

인도불교도 5만여명 거센 시위

부다가야 대탑(대각사) 운영권 반환을 요구하는 인도의 승려와 신도들의 시위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시위에는 아그라 거주 아난드스님이 이끄는 5만명 이상의 군중이 동참하고 있으며 일본 출신 수리사씨스님도 참여하고 있다. 수리사씨스님은 올해로 여덟번째 이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부족한 숙박시설과 음식으로 노숙을 하며 대탑의 운영권 반환을 요구하는 시위대는 하루하루 눈물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일에는 1백명 이상의 인도인들이 대탑 보리수 아래서 삭발하고 수계식을 거쳐 새 스님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부다가야 대탑의 운영 주체인 힌두교 중심의 운영위원회와 비하르 주정부 당국은 불교계의 요구에 이를 대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 지역 경찰과 외지에서 파견돼 온 경찰 병력도 심판까지 지급받고 유혈충돌에 대비하고 있어 삼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인도 독립 직후인 1949년 비하르 주정부는 부다가야 대탑 운영법을 제정 운영위원회는 8명 명을 두었다. 그중 4명은 힌두교사제이고 4명은 불교도이지만 당연직위원장은 부다가야 세무장관이었고 있다.

그러나 이 운영법은 힌두교 측이 유리한 특별조항을 제정하고 있어 불교도의 운영위원회 참여폭은 매우 제한적이다. 때문에 1백여년을 이끌어 온 부다가야 대탑 반환요구는 인도불교계의 지속적인 투쟁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인도 부다가야=월우스님)

美 재소자 교화잡지 인터넷 열람 가능

지난해 미국의 Kobutsu Shindo에 의해 조직된 재소자들의 선수행과 정신운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EZF(The Engaged Zen Foundation)에서 재소자들을 위한 'Gateway' 잡지가 발간됐다.

이번에 처음 발간된 Gateway는 주로 재소자들이 선수행을 하려던 동기나 자신의 법경험담을 솔직하게 쓰고 있고 문맹인을 위한 선만화, 효과적인 선수행에 관한 방법들도 실려 있다.

인터넷을 통해 Gateway를 보려면 <http://www.teleport.com/~ldotm/GATEWAY/>로 들어가면 된다.

美 서부지역 전법지 미주한국불교 창간

미국 서부지역의 불교계 소식을 전하고 전법에 임의를 담당할 '미주한국불교' 신문이 지난 1일자로 창간됐다.

이 신문의 발행인은 정산스님이며 부사장이 이태조씨가 명예회장, 김학순씨가 편집인, 장지현정사가 주필을 맡고 있다.

당분간은 매월 1일자로 대관 8면으로 발행하지만 내년부터는 격주간으로 내용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찰문화 프로 늘고있다

선암사 주변 SBS '선암사의 비밀' 등 교풍관광 TV도 '종통 미물에 포커 불교유적기행물'이 10시30분~11시30분과 '향토순례(오전 5시30분~6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곳곳의 유서깊은 사찰을 찾으며 수많은 문화재와 그 속에 깃든 불교정신을 면밀히 소개하고 있다.

이들 TV프로그램들이 문화유산들을 세밀히 소개하면서 도 서정적인 영상을 펼쳐보이는 것도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

방송가 소식

법식·공양 찬불가 뮤직비디오 제작

불교TV 영상사업부와 부산 한마음선원은 찬불가의 대중화와 영상포에 초석을 놓는 '부산 한마음선원합창단 뮤직비디오'를 제작한다.

이와함께 해외로 촬영될 이 뮤직비디오는 법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하는 법식찬불가와 불교저변의 아름다움을

청주 BBS 현판식·개국준비 박차

불교청주방송 개국준비위원회(위원장 월성스님)는 지난 8일 추진설명회 및 현판식(사신)을 갖고 "지난 9월28일 성화동에 마련한 5백평부지에 정사를 내린 8월까지 신축하여 11월경에 개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청주방송개국준비위는 30여명의 기금을 확보키로 하고 법주사 10억, 신도기금 5억, 상임위원 및 각종 15억으로 할당하고 본격적인 기금 마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국준비위는 중부지역을 순회하며 법회를 순차적으로 열 계획이며 법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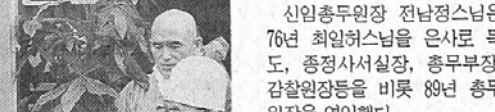
정동호사장 선임반대 佛放특위, 이사회에 요구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후임사장선출과 관련 도덕성을 가진 전문방송인·경영인으로 사부대중의 존경을 받는 자로 신중히 선출할 것을 이사회에 요구키로 하고 "이사장 종학스님이 BBS의 대표자"라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화종 총무원장에 전남정 스님

총화종 제13대 총무원장에 전남정스님(수진사 주지)이 선출됐다.

총화종은 지난 2일 제35차 정기중앙총회를 갖고 전남정스님을 차기총무원장으로 선출하고 95년 세입 세출의 건을 심의·통과시켰다. 또한 이날 중앙총회는 공식종교 교육원장에



盧씨 구속수감 마땅

태고종 스님74% 설문응답

노태우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 태고종의 중도를 대부분이 사법처리후 구속수감할 것과 절에 들어온다는 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입장은 한국불교신문이 지난달 28일 태고종 소속 2천6백여명의 사찰가운데 1백사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태고종도들은 '노태우 전대통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74%가 사법처리와 구속 수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천태종 삼개사 낙성

천태종 강동 삼개사(주지 진덕스님)는 지난 8일 대웅전 낙성식을 가졌다.

강동시 남문동 183-1번지에 위치한 삼개사는 지난 93년 불사를 시작 의포 내포 총 60평의 고건축양식으로 낙성됐다.

전통적 총무원장을 비롯 중단간부스님과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덕스님은 "향후 삼개사는 불교의 불모지인 강동지역이 불교중심의 도시로 거듭나도록 다각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수많은 불자가 지장보살님을 모셔놓고 정진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가정 한분모시기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1. 무불시대의 부처님. 이시대의 부처님이신 대원본존지장보살마하살님을 가정에서 모셔놓고 조석으로 예경하고 마음을 닦지않으시렵니까.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성불시키는 그날까지 성불하지 않겠노라는 본원을 세운 대성지장보살을 이미 전국삼만불자가 모셔놓고 정진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혼신의 힘과 심혈을 다하여 제작된 백자(도자기)지장보살존상은 금전적인 가치로는 따질수 없는 소중한 보배이며 이시대 최고의 예술품이오니 한분씩 모셔놓고 기도하시면 삼세업장이 소멸되고 무량공덕을 필히 얻으실 것이오니 불자님께서도 동참하여 주십시오.
2. 사찰에서도 원불로 모실수 있습니다. (많은 사찰에서 원불로 모셨습니다.)
3. 이산해연선사 발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을 백자에 순금으로 대진선홍사의 묘허큰스님(혜원)께서 친히쓰신 도자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상 • 25cm×30cm×33cm

지장보살좌상 • 25cm×30cm×33cm

• 45cm×143cm

1. 장식장 포함됩니다.

2. 구입방법 본사: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1038-13 佛音般若 TEL: 0345-413-4647~8

경남지점: 경남불교용품판매전시장 TEL: 0551-95-8911~2

3. 가격: 지장보살상.....200,000원
 지장보살좌상.....180,000원
 해연선사발원문.....500,000원
 반야심경.....300,000원

京畿道 安山市 仙浮洞 1038-13 (佛音般若) TEL: 0345-413-4647~8

全 斗 漢 合 掌